

‘MLB 도전’ 이정후, 미국 출국... “12월 초 포스팅 될 것” 전망

KBO, 24일 MLB 사무국에 포스팅 요청
샌프란시스코·양키스 등 행선지로 거론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이정후(25)가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 관계자는 28일 “이정후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다. 미국에서 계획된 훈련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후는 현지 적응 등을 위해 예정보다 일찍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포스팅 시점이 12월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른 출국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 기사는 28일(한국시간) 개인 SNS에 “KBO리그 최우수

선수(MVP) 출신인 이정후는 12월 초에 포스팅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정후의 원소속팀 키움은 22일 이정후의 의료 기록 등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했고, KBO는 24일 이정후를 MLB 30개 구단에 포스팅해 줄 것을 MLB 사무국에 요청했다. MLB 30개 구단은 MLB 사무국이 포스팅을 고지한 다음 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오후 5시까지 이정후와 계약 협상이 가능하다.

이정후는 MLB 사무국이 포스팅을 공식 발표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에이전트인 스코트 보라스와 함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MLB 구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20개 팀이 이정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 현지에서는 외야 보강이 절실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를 이정후의 예상 행선지로 꼽고 있다. 미국 매체 N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는 “이번 비시즌 프리에이전트(FA) 중 중견수로는 코디 벨린저가 최고지만,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에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양키스가 이정후를 영입해야 한다고 추천한 바 있다. 현지 매체들은 이정후의 계약을 낙관적인 시



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5000만 달러(약 648억 원) 이상의 대형 계약을 맺을 것으로 내다봤다.



KIA 타이거즈 마무리 캠프에 참가한 선수단 단체 사진. (사진= KIA 타이거즈 제공)

통합 4연패 도전 대한항공, 우리카드와 1위 놓고 격돌

남자배구 대한항공과 우리카드가 1위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대한항공은 오는 30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우리카드와 홈 경기를 치른다. 시즌 8승 3패(승점 25)를 기록한 1위 대한항공은 2위 우리카드(8승 3패·승점 22)에 근소하게 앞서 있다. 최근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을 모두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한 대한항공은 우리카드를 잡고 선두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한용과 링크, 임동혁이 이끄는 공격력은 리그 최강이다. 특히 정한용은 공격성공률 55.95%를 기록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토종 공격수 중 가장 뛰어난 득점력을 자랑한다. 수비에서도 만점 활약을 펼치고 있다. 대한항공은 55%가 넘는 팀 공격성공률을 기록 중이다. ‘주포’ 정지석이 없지만, 세터 한 선수가 노련한 볼 배합으로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수비의 중심 오은열은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은 V-리그 사상 첫 4시즌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1라운드에서 5승 1패를 기록하며 선두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최근 2경기 연속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해 2위로 내려앉았다.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외국인 선수 마테이의 부진이 뼈아프다. 마테이는 최근 ‘이석증’(궂은 전정기관에서 평형각각을 유지시켜주는 ‘이석’이 떨어져 어지러움, 구토 등을 일으키는 질환) 진단을 받은 이후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 26일 OK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우리카드 공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마테이의 부진으로 인해 팀 전체의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카드는 1라운드에서 대한항공을 물리친 바 있다. 이번에도 승점 3을 확보하면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 신영철 감독은 OK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 패한 후 “마테이가 처음 한국에 와서 보여준 안 좋은 (빨) 스윙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좋아지고 있었는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 다시 공을 짊어지고 때리기 시작했다”며 자세 교정을 시사했다. 우리카드는 박진우와 송명근이 부상에서 돌아와 전력이 상승했다. 마테이만 회복하면 다시 한번 ‘대어’를 낚을 수도 있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 캠프를 마치고 28일 귀국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KIA의 이번 마무리 캠프는 체력과 기술, 선수층 강화를 통한 팀 전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는 2024년 신인 5명이 참가해

프로 무대에 데뷔하기 위한 담금질을 마쳤다. 또 새롭게 합류한 정재훈, 이동걸 코치가 선수단과 함께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 아울러 2024시즌부터 KBO리그에 도입되는 피치클록(투구 시간 제한) 규정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했다. 마무리 캠프를 마친 김종국 KIA 감독은

KIA, 마무리 캠프 종료... “훈련 성과 크다”

체력·기술·선수층 강화 통한 팀 전력 향상 목표로 진행

“모든 선수들이 올 시즌 부족했던 점과 내년 시즌 필요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마무리 캠프에 임했다. 훈련 성과가 크다”며 “지나해와 달리 올해는 이창진, 이우성, 박준표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이 함께해 훈련 집중도가 높았다. 베테랑 선수들이 출신 수범하는 모습을 어린 선수들이 보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두각을 드러낸 선수를 꼽아달라는 말에 김 감독은 “특정 선수가 아닌 모든 선수들이 다 잘했고, 기량이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우성은 처음 시도하는 1루 수비 훈련에 잘 적응했고, 최근 2년간 부상, 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박준표도 투수조 고참으로 출신 수범하며 훈련을 잘 소화했다”고 답했다. 김도영 등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내야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김 감독은

“이번 캠프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내야 데프(선수층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퓨처스(2군)리그 규정타석을 채운 정해원이 이번 캠프를 통해 한층 더 성장했고, 신인 김두현도 수비력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며 “변우혁과 김규성도 간결한 스윙으로 타격에서의 약점을 보완해 가고 있다. 호주리그에 참가중인 박민도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마무리 캠프는 시작에 불과하다. 스프링캠프 전까지 어떻게 몸을 만들고 준비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캠프에 참가한 선수들 뿐 아니라 선수단 모두가 비시즌 동안 개인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고 내년 시즌을 잘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35살에 첫 타격왕...NC 손아섭 “이제 시작, 나태해질 수 없죠”

두 차례나 근소한 차이로 타율 2위
올해 타율(0.339)·최다 안타(187) 1위

마침내 타격왕에 대한 갈증을 풀 손아섭(35·NC 다이노스)이 활짝 웃었다. 손아섭은 2023시즌 KBO리그에서 가장 정교한 타격을 선보인 타자다. 140경기에 출전해 187안타를 때려내고 타율 0.339를 작성했다. 최다 안타 1위도, 타율 1위도 그의 차지였다. 최다 안타 트로피는 2012·2013·2017년에 이어 벌써 네 번째 품지만, 타격왕 타이틀을 거머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만난 손아섭은 “타율 1위에 오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만큼 더 뜻깊다”고 길었던 기다림을 떠올렸다. 그는 매년 아슬아슬하게 타율 1위를 놓쳤다. 롯데 소속이던 2013년 타율 0.345를 기록한 손아섭은 0.003 차이로 타격 1위를 이병규(당시 LG 트윈스·0.348)에 내줬다. 2020년에는 타율 0.352를 작성했지만 0.354를 때린 최형우(KIA 타이거즈)에 밀렸다. 타율 2위에만 두 차례 머문 손아섭은 “나에겐 (타격왕이)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다. 참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타율, 안타왕을 수상한 NC 손아섭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당을 못 당지 않았다”며 “올해도 못 타면 은퇴할 때까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에도 구자욱(삼성 라이온즈·0.336), 김혜성(키움 히어로즈·0.335), 홍창기(LG·0.332) 등과 끝까지 치열하게 다했다. 세 번째 도전에

서는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됐다. 간절했던 그 자리에 오른 손아섭은 “나중에라도 내 야구 인생을 돌아봤을 때 타격왕 타이틀이 있고 없이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내내에도 시상식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이번 도전에서 큰 힘이 됐다. “어릴 때 처음 타격왕에 도전했을 때는 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커서 오히려 타격 밸런스도 무너지고, 타석에서 쫓기게 되더라”고 돌아본 그는 “이번에는 멘탈적으로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내 경험상 나와 경험한 선수들도 분명히 의식을 했을 거다. 기술적으로는 내가 그 친구들보다 밀이지만, 멘탈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경험자’의 여유를 보였다. 6년 만에 최다 안타 타이틀을 되찾아 온 것도 이번 시즌 의미 있는 성과다. KBO리그 최초 8년 연속 150안타 금자탑을 세운 손아섭은 박용택 KBO 해설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통산 최다 안타(2504개) 기록도 넘고 있다. 이 부문 2위 손아섭은 데뷔 후 통산 2416안타를 쌓았다. 서른을 훌쩍 넘은 나이, 선수로는 황혼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손아섭은 다시 한 번 열여섯 전성기를 만끽하고 있다. 손아섭은 “사람들은 ‘나이도 있고, 부상 위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즐기 살기로 하냐고 한다. 하지만 이런 도전들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태해질 수 없는 목표가 있으니 내년에는 (통산 안타에서) 내 이름을 제일 위에 올릴 수 있는 시즌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5관왕 페디가 신인왕 문동주에게 “언젠가 네가 MVP 받았으면”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에릭 페디(30)가 신인왕 한화 이글스 문동주(20)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NC 다이노스에서 에이스 임무를 맡았던 페디는 화려한 시즌을 보냈다. 30경기에 등판해 20승 6패 209탈삼진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했고,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 부문을 석권하며 투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단일 시즌 20승과 200탈삼진도 동시에 작성하는 괴력을 과시했다. 1986년 해태 타이거즈 선동열(24승·214탈삼진) 이후 무려 37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다.

페디는 2023 KBO 시상식에서 활약을 인정받았다. MVP, 수비상,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상을 휩쓸며 5관왕에 올랐다. 페디는 직접 트로피를 받고 소감을 전하기 위해 시상식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페디는 이날 신인상을 수상한 문동주와 단상 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페디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단상 위에서 문동주와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 매우 뜻깊은 하루”라며 “야구 사진을 찍을 때 뒷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마음을 전했

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동주는 내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KBO리그에 입성한 페디에게 한국은 낯선 땅이었다. 페디는 팀 동료인 NC 김시훈(24)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페디는 “많은 선수들이 도와줬는데 굳이 한 명을 고르면 김시훈이다. 애리조나주 투손스프링캠프지에서 만났을 때 언어 장벽이 있었음에도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다. 투손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친분을 많이 쌓았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마음을 전했다.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MVP NC 페디와 신인왕 한화 문동주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